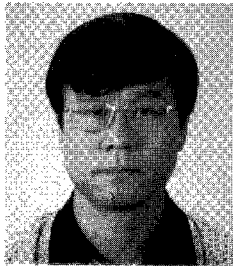


종계인들이 닭고기 소비홍보를 주도해야 한다.



최 성 갑
도원농장 대표

육 용종계업의 현 상황은 2년여에 걸친 불황과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있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종계업을 그만하고 싶어도 그만 두었을 때 부딪칠 부채문제, 생계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만둘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종계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불황을 맞

게된 근본 원인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종계인들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불황의 원인

1) 종계의 양적 팽창

1990년부터 종계업이 호경기를 타면서 종계장이 늘기 시작하였으며 여기에 맞추어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더 많은 종계장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업계는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95년 엄청난 병아리 파동으로 인하여 병아리가격의 폭등으로 더 많은 종계장이 확장 또는 새로이 생겨났으며, 이때에 병아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계열사들이 자체 종계장을 갖거나 위탁사육 등으로 병아리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결과 종계업계가 양적으로 많은 팽창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육용병아리의 과잉생산으로 육계업계가 어려워짐으로써 종계업계와 계열업체 그리고 원종계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2) 소비의 위축과 종계인들의 단결력 부족

종계인들은 각자 개인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빠서 불황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모두 자기의 몫이 아닌 남의 몫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한 눈치만 살폈다. 그 결과 IMF가 오면서 소비의 엄청난 위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병아리 공급의 과잉을 초래하게 되었다.

소비가 줄은 만큼 생산이 줄어야 함에도 우

리는 생산을 줄이는 데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였다. 그동안 업계에서 나름대로 병아리 및 종란의 폐기처분 등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서로 협력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종계를 도태하는 것이 생산을 줄이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종계도태에 손을 대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 결과 병아리의 과잉공급을 가져왔다.

3) 생산비의 상승

IMF가 오면서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곡물가격의 상승은 사료비의 상승을 초래하여 병아리 및 계육의 생산비가 급격히 높아짐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4) 유통과정과 어음의 유통

병아리가 많아지면서 유통과정이 혼란스럽게 되었다. 종계업자들간에 서로 자기 병아리를 팔기 위한 과다 경쟁으로 가격의 하락을 부채질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소개소 마음대로 병아리 가격을 조정하게 됨으로써 종계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계열사들과 소개소 등에서 병아리 대금, 육계구입대금 등을 어음으로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2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육계구입대금을 계열업체에서 소개소 단위로 몇일간 구입한 구매대금을 한 장의 어음으로 한꺼번에 결제함으로써 그것을 농가별로 나누어 줄 수 없게 된 일부 소개소들은 이를 악용하여 현금으로 결제해준다는 조건으로 100원내지는 200원을 시세보다 아래로 가격을 결정하여 어음의 이자보다도 많은 부분을 그들

이 착복하게 되자 육계농가는 손해인줄 알면서도 사료대금의 지급문제와 불안한 어음보다는 현금이 안전하다는 생각하에 낮은 가격에 현금 출하를 하게됨으로써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하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육계농가가 손해를 보게되자 종계농가 또한 손해를 보게되고 더 나가서는 그 어음을 발행한 계열사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병아리대금 역시 현금가격으로 몇십원 빼주어서 판매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물론 소개소는 나름대로 받은 어음이 부도라도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소개소가 안게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계열업체 역시 그들대로의 사정상 어음을 발행하였을 것이다.

2. 육용종계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위에 열거한 몇가지 불황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생산의 과잉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우리가 이 불황을 이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는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1) 종계인의 단결

종계업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우선 종계업계의 단결이 필요하다. 같은 종계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버려야할 것이다. 시장의 생리에 따라 우리 각자가 경쟁을 한다면 그 출혈은 엄청나지 않겠는가? 여기서 살아남은 자도 엄청난 출혈을 본 후일 것이다. 종계업이 발전하려면 우선 육계업이 발전하여야 한다.



육계업이 발전하기 위하여 종계업계가 해야 할 일은 육계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의 병아리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종계업계가 망각한 결과가 오늘의 불황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서로 살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선택의 방법은 종계인의 단결로 육계업도 살고, 종계업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야만이 종계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 환우의 금지

종계업계에서 이제는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팽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환우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종계인에게 많은 이득을 줄 것이다. 여지껏 해온 환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우리 종계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이제는 질적으로 양호한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계인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원종계농장 및 계열사의 협조

종계업계가 발전하려면 육용계 병아리의 생산의 씨앗인 종계가 과잉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종계가 과잉되지 않도록 원종계농장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종계를 적절히 분양함으로써 다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계열업체에서도 종계업계와 상호 협력하고, 어음발행 등을 자제하여 준다면 육계 및 종계업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2중가격의 형성을 막아 결과적으로 계열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정부에 대한 바람

정부에서는 육계 산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옛날처럼 종란을 수입한다던가 하는 일이 재현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종계업계 내지는 육계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종계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농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 농가들도 돈을 벌어야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경기가 좀 좋아지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농가가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농가가 돈을 벌면 안되는 것인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만히 놔두어도 얼마 못가서 생산이 늘어나는 것이 농업의 특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그러므로 생산조절을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5) 소비의 촉진

닭고기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이제 종계업계도 힘을 써야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종계업계가 닭고기 소비홍보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라도 닭고기 소비홍보에 적극 가담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닭고기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1주일에 1마리 이상의 닭고기를 반드시 사먹고 주변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닭고기 소비홍보를 실시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3. 맺는말

결과적으로 종계업계가 발전하기 위하여는 하나도 단결이요 둘도 단결 뿐이다. 종계인들이 나보다는 종계업계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단결만 잘 된다면 결국 자기자신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종계업이 무궁히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일들이 시행되어진다면 종계업의 발전에 많은 촉진제가 될 것이고 또한 종계인의 단결만이 위와 같은 일을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계

어떻게 하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을 수 있나?

- 가축이 먹는 사료와 물은 오염이 되지 않았나 주의깊게 관찰하여 오염되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고
- 동물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용 10대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 특히 질병을 치료할 때 약품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사용한다.
- 다 자란 가축은 휴약기간을 충분히 지킨 후 출하를 하시되 출하 전 일정기간은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배합사료를 먹여야 한다.